

魏晉南北朝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中國中醫科學院 醫史文獻研究所**

朴炫局*·金基郁·朴宣柱·梁峻**

关于魏晉南北朝的醫政史研究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中國中醫科學院 醫史文獻研究所

朴炫局·金基郁·朴宣柱·梁峻

医药学的存在和发展因素有内在因素, 外在因素。内在因素里有学问本身的特殊理论系统, 涵有很丰富的科学意义, 临床治疗效果, 病人的信赖等。外在因素里有政治, 政策, 经济, 文化方面等等。这般因素中医学政策的影响是最直接和决定性的。并且医学政策的直接因素里有医药方面有关系的制度, 政策, 法令等, 间接因素里有国家典章制度, 国家方针和政策等。

在古代封建社会上政策的概念是国家, 政党在特定历史时期上为了实现路线和任务, 规定的行动准则。比如说皇帝的诏, 令, 敕, 谕及政府的各种政令等。

本论文是大韩韩医学原典学会纸上寄稿的『关于秦汉时期医政史研究』上如阐明, 通过和中国梁峻教授共同研究的连续的研究成果。

至于魏晉南北朝时期的医政史, 论者关于魏晉南北朝政治概要, 医药政策, 医政组织的初步构筑, 医药政策和医药发展关系, 关于医政评价和形成原因等分成五个方面后, 进行研究并整理报告其结果。

Key Words : 醫政, 醫政史, 魏晉, 南北朝, 太醫署, 尙藥局, 醫坊, 醫館,

I. 序論

醫藥學의 존재와 발전 요인으로는 내재적인 요인과 외재적인 요인이 있다. 그 내재적인 요인으로는 학문자체의 독특한 이론체계, 풍부한 과학적 의미를 내포, 임상치료효과, 환자로부터의 신뢰 등이 있을 것이며, 외재적 요인으로는 정치, 정책, 경제, 문화 등의 방면으로 열거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 가운데 의학 정책은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학정책을 세분화하면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의학분야와 관련된 제도, 정책, 법령 등이 있고,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국가 典章制度, 국정방침과 정책 등

이 있을 것이다.

古代封建社會에서의 政策의 개념은 국가, 정당이 특정역사시기에 노선이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규정한 행동 준칙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황제의 詔, 令, 敕, 諭 및 정부의 각종 政令이 해당된다.

본 논문은 魏晉南北朝時期的 醫政史에 관하여 論者は 위진남북조에 관한 정치개요, 의약정책, 의정조직의 초보적인 구축, 의약정책과 의학발전과의 관계, 의정에 대한 평가와 형성 원인에 관하여 다섯 분야로 나누어 中國의 梁峻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 교신저자: 朴炫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54) 770-2370, parkhg@dongguk.ac.kr

II. 本論

1. 위진남북조의 정치개요

이 시기는 魏·文帝가 黃初 원년(A.D. 220년)에 漢을 멸망시킨 때부터 隨·文帝 開皇 9년(A.D. 589년)에 陳을 멸망시키기까지 대략 370년이다.

東漢말기에 황실이 쇠퇴하여 사회가 동요되고 불안하였다. 지역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郡에 州牧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지방 세력을 강화시켜 규모가 큰 수많은 무장집단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집단들은 黃巾의 난을 진압한 뒤 다시 서로 합병하였다. 曹操는 袁紹·袁術을 무찌르고 북방을 통일하였고, 劉備는 荊을 점령하였고 孫權은 江南을 지배했다.

建安 13년(208년)에 조조는 유비를 공격하여 江東을 평정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나섰지만 손권과 유비가 연합하여 赤壁大戰에서 조조의 군대를 대패시켰다. 유비가 蜀漢을 세워 益州를 점령하였다. 220년에 조조가 죽자 그 아들 曹丞이 漢·獻帝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 국호를 魏라 하였다. 다음 해에는 유비가 왕위에 오르고 국호는 漢이라 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손권이 왕위에 올라 국호를 吳라 하였다. 이로써 삼국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고 대략 61년 간 지속되었다.

魏는 漢의 통일 대세를 계승하여 中原·關中 등 광범한 지역을 점령하였고 曹操시기에 실시한 屯田제도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은 유랑 농민을 모집하여 주인이 없는 토지를 경작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인 모순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이 외에 曹魏는 군대에 屯田을 실시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정권을 효과적으로 공고히 하였다. 그렇지만 조위 정권은 권문세가(사족 지주들)의 지원 아래 발전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관리의 선발제도는 동한말년부터 지방문벌로 발전해온 세력들을 회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권문세가의 세력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고 오히려 “九品中正制”¹⁾를 통해서 그들이 국가정권을 독점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曹魏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황실을 고립시켰으며

결국 정권이 司馬世家的 수중으로 넘어갔다. 263년에 魏에 의해 蜀이 멸망했다. 265년에 司馬炎이 위를 멸망시키고 西晉을 세웠다. 280년 晉이 吳를 멸하여 중국을 통일시켰다.

西晉시대에는 同姓에게 작위를 봉하고 권력을 맡겨 “구품중정제”를 진일보 발전시켰는데, “臺閣選舉, 徒塞耳目, 九品訪人, 唯問中正 ……”²⁾하였다. 관리의 선발은 가문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 “上品無寒門, 下品無勢族”³⁾하고 “公門有公, 卿門有卿”⁴⁾하는 현상이 형성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西晉은 占田制를 실시하고 관리는 官品에 따라 占田, 占客, 蔭親屬을 규정함으로써 權門勢家로 하여금 대량의 토지·佃客과 이에 따른 농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서진 왕조가 건립될 당시에는 농민의 불만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건립한 후에는 世家와 관료의 특권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치는 서진 통치계급의 부패를 초래하였고, 백성들을 잔혹하게 압박하였으며,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첨예화되어 “八王之亂”과 “五胡之禍”를 폭발시켰다. 백성들이 잇달아 반란을 일으켜 316년에 西晉이 멸망하였다. 江南에 주둔하고 있던 서진의 왕족 司馬睿가 잔여 지주세가의 지원을 받아서 317년에 建康(지금의 南京)에 東晉 왕조를 세웠다. 이와 동시에 西晉을 무너뜨리는데 참여한 북방 민족인 匈奴·鮮卑·羯·氐·羌 등도 잇달아 북방에 왕조를 세웠는데, 이를 “五胡十六國”이라 한다.

420년에 劉裕가 東晉을 멸하고 자립하여 국호를 宋이라 하였는데 이로부터 南朝가 시작되었다. 479년에 蕭道成이 劉宋을 멸하고 국호를 齊라 하였는데, 이것이 齊의 高帝이다. 고제는 안으로 정치를 잘하고 밖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역사적으로 “永明之治”라 하였다. 和帝에 이르렀다가 501년 蕭衍이 제를 멸망시키고 국호를 梁이라 하였는데 이가 梁·武帝이다. 무제는 학식이 해박하고 정치를 근면히 하고 백성을 아꼈으며 말년에 佛法에 빠져 政事를 소홀히 하

2) 孫人龍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817.

3) 孫人龍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769.

4) 孫人龍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6*494.

1) 洪元植 외1人.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 186.

여 결국 東魏에서 투항한 장군인 侯景에게 몰려 臺城에서 굶어죽었다. 557년에 陳霸先이 梁을 멸하고 국호를 陳이라 하였다. 말기에 이르러 陳의 後主인 叔寶가 사치와 환락에 빠져 589년 隋에 합병되었다. 이상 宋·齊·梁·陳 四代史를 南朝라 한다.

북방은 386년에 鮮卑族인 拓跋圭가 다시 나라를 세워 국호를 魏라고 하였는데, 역사에서는 北魏 혹은 後魏라 한다. 이후로 계속해서 北燕 등을 평정하여 439년에 魏가 북방을 통일하여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 되었다. 북위는 均田制를 실시하여 계급간의 모순과 민족 간의 모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킴으로써 경제가 번영하였다. 534년에 北魏는 東·西魏로 분열되었다. 東魏는 高洋이 멸망시켜 국호를 齊(北齊)라 하였고, 西魏는 宇文覺이 빼앗아 국호를 周(北周 혹은 後周)라 하였다. 周·武帝가 동쪽의 北齊를 멸하여 북방을 다시 통일하였다. 北魏에서 北周까지를 北朝라 한다. 북주는 楊堅에게 찬탈되어 국호를 隋라 하였다. 589년 隋가 陳을 멸하고 전국을 통일했다.

이 시기 정치제도에 三公九卿 등의 관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중앙에는 三省制度가 형성되어 정권이 부단하게 변천되었다. “九品中正”의 관리 선출로 시종하여 항상 문벌 士族이 정권을 농단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발전의 전체적인 추세는 魏晉은 느리거나 침체되었고, 南北朝는 지속적으로 번영하였다. 번영한 원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권을 할거하여 경제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둘째는 中原의 백성들을 전란을 피해 남쪽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생산 방식과 과학기술이 江南으로 전파되었다. 셋째는 중원에 들어온 소수민족과 융합하면서 경제에 더욱 활력을 얻었다. 사상, 문화적으로는 兩漢에서 儒術만 유독 존중하던 것이 타파되고 玄學이 흥기하였고 불교·도교가 유행하면서 사상이 다시 해방되어 춘추전국시대 이후 다시 百家가 爭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위진남북조시대가 370년 동안 지속되면서 晉·武帝가 뜻을 펼친 후 20년 동안 통일을 이룩했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는 분열되고 와해되어 중국역사에 있어서 가장 긴 혼란 시기였다. 오랜 분열을 통하여 왕조가 빈번하게 교체되었고, 변방 민족이 중원을 침입함으로써 민족이 융합되었고, 전란으로 중원의 백

성들이 남쪽으로 이주함으로써 고립된 지역이 개발되어 남북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졌고, 현학·불교가 성행하는 것 등이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이다.

2. 위진남북조 의약정책

위진남북조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빈번한 왕조의 교체는 이 시기 여러 방면의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이런 주마등과 같은 통치자들도 각자의 통치 특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의약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의약정책이 달랐다. 만일 이 시기의 어느 한 王朝의 의약정책만을 고립적으로 관찰하고 평론할 때에 어떤 방면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정책을 총체적으로 관찰하고 평론할 때에는 이 시기 각 왕조의 통치자가 의약정책 방면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함께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책적인 작용을 가진 이러한 자료를 歸類시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1) 皇帝와 정부의 의약 “恩賜” 정책

『三國志』, 『晉書』 등의 史書와 『通典』, 『通志』, 『文獻通考』에서 위진남북조시대 의료에 대한 詔令 및 정책을 찾았는데, 모두 44조문에 이른다. 그 중 35조문은 황제나 정부가 의약을 백성 혹은 소속된 將相에게 하사한 내용이다. 의사를 파견하여 약품을 하사한 배경을 밝히기 위해 특히 이 시기에 전염병이 유행한 상황과 정부가 채택한 정책을 밝히기 위해 이 시기에 전염병이 발생한 횟수에 대한 통계를 냈다. 또한 醫藥詔令을 분류하여 횟수를 기록한 것이 아래 【표 1】과 같다.

王 朝	백성에게 약품 하사		통치자에게 하사함 (王·侯·將·相)	
	역병발생 유형	하사 횟수		
				평시
魏	9	2	1	
晉	26		7	
南 朝	宋	13	5	4
	齊		1	
梁	10			1
	陳	2		
北 朝	北魏	12		7
	北齊			
北周	1			
합계	74	7	8	20

표 1 위진남북조 시기 황제 및 정부가 의사를
과견하여 약품을 하사한 상황표

【표 1】에서 위진남북조 361년 동안에 기재된 역병의 발생은 적어도 74번으로 평균 5년이 못되어 한 번 꼴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魏, 晉, 劉宋시대가 가장 많아 모두 48차례나 발생하였다. 역병의 유행으로 백성들이 많이 죽었는데, 한 번에 십여만 명이 사망했던 역병은 魏에 두 번 있었다. 더욱 심한 것은 北魏·顯祖 皇興 2년(468년)으로 “十月豫州疫, 民死十四萬.”이었다⁵⁾. 이 시기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전쟁을 제외하고 전염병 유행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창궐한 역병에 직면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표 1】을 통해서 劉宋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이 시기의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 의사와 약물이 부족하여 국가정부도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둘째는 통치자의 마음속에 백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정부가 백성들의 질병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인 기재가 확실하지 않거나 혹은 찾아본 자료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타난 숫자로 볼 때 이상의 두 가지 원인으로 귀결시킨 것은 지나치지 않다.

5)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2*818.

전염병 유행에 대한 당시 정부의 태도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적어도 적극적으로 못했다. 따라서 황제나 정부가 평상시에 백성들에게 약품을 하사한 적은 더욱 드물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면 황제나 정부가 그 관원들에게 의약품을 하사한 횟수는 백성들에게 하사한 횟수를 크게 웃돈다. 복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부는 평상시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약품을 하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 사회에서 정부가 경제상황이 좋지 못해 백성들에게 약품을 하사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정부가 능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역시 먼저 宮廷이고 다음에 部屬 기관이고 백성에게는 마지막으로 하사하였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할 것이다.

2) 劉宋과 北魏 의정의 전형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魏晉南北朝시기에는 정부가 의사를 과견하고 약품을 하사한 일반적 정황을 분석하였고, 동시에 劉宋과 北魏 두 왕조의 의정이 다른 왕조와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래에서 각각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먼저 역병에 대해 채택한 劉宋의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진남북조 361년 사이에 발생한 역병은 모두 74차례로 그 중에서 정부가 의사를 과견하고 약품을 하사한 것은 모두 7차례이며 그 가운데 劉宋 때 행한 것이 5차례이다. 그 시대의 사회에서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면 진보된 것이 아닐 수 없다. 5차례에 걸쳐 의사를 과견하고 약품을 하사한 것은 文帝인 劉義隆과 孝武帝인 劉駿이 통치하던 시기이다. 文帝는 元嘉 4년(427년) 5월에 “京師疫疾, 甲午遣使存問, 給醫藥”⁶⁾하였고, “死無家屬者, 賜以棺器”⁷⁾하였다. 元嘉 24년(447년) “六月, 京邑疫癘, 丙戌使郡縣及營署部司, 普加履行, 給以醫藥”⁸⁾하였다. 元嘉 28년(451년)에 “都下疾疫, 使巡省給醫藥.”⁹⁾하였다. 文帝가 집정한

6) 沈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1*148.

7)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5*48.

8) 沈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7*68.

9)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7*68.

기간에 역질이 3차례 발생하였으나 매번 의사를 파견하고 약품을 하사하여 지방이나 군대에 보편적으로 예방과 치료를 실시하였고 죽은 후에 親屬이 없는 자에게는 관을 하사하였다. 文帝의 이런 행위는 우연이 아니며 백성의 질병에 계속 관심을 기울인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예를 들어 “元嘉 十年(433年)正月大赦詔。孤老六疾不能存者人賜五斛。”¹⁰⁾하였고 “元嘉 二十六年(449年)三月，行幸丹徒，詔遣使巡行百姓，問所疾苦孤老鰥寡六疾不能自存者，人賜各五斛”¹¹⁾이라 하였다. 이상의 정책은 적어도 세 가지 점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 劉宋 文帝는 백성의 질병에 대한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고상한 의정 행위를 한 황제이다. 둘째, 文帝 시기에 이미 역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황제가 관심을 가진다면 고대 정부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역병을 통제할 수 있었다. 劉宋 孝武帝인 劉駿은 文帝의 전통을 계승하여 그가 집정할 때 발생한 두 차례의 전염병에 대해 통제 조치를 마련하였다. 孝武帝 大明 元年(457年) “夏四月，京邑疾疫，丙申遣使按行賜給醫藥”¹²⁾하였고, “死而無收斂者，官爲斂埋”¹³⁾하였다. 大明 4년(460년) 여름 4월 辛酉에 “都邑節氣未調，癘疫猶衆，言念民瘼，情可矜傷，可遣使存問并給醫藥，其死亡者，隨宜恤贍”¹⁴⁾할 것을 조칙을 내렸다. 이로써 劉宋 중기 文帝·孝武帝의 醫政은 객관적으로 전염병을防治하는 책임을 정부의 차원으로 제고시켰고, 정부가 역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책임을 지는 선례를 열었다.

北魏 獻文帝·孝文帝·宣武帝 시기 때의 의정이 찬양 받을만하다.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군중의료기구를 증설하여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의약보건을

개선한 점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方面으로 나타난다.

첫째, “醫館”을 세워 백성을 위해 병을 치료하였다. 太和 21년(497년)에 “……及不滿六十，而有廢痼之疾，無大功之親，窮困無以自療者，皆于別坊遣醫救護，給太醫師四人，豫請藥物以療之”¹⁵⁾할 것을 조칙을 내렸다. 永平 3년(501년)에 조칙을 내리길 “……可勅太常……別立一館，使京畿內外疾病之徒，咸令居處，嚴勅醫署，分師療治……”¹⁶⁾하게 하였다. 北魏 이전에 정부가 주관하여 백성을 위한 의료 기구를 설치하였다고 증명할만한 자료가 아직 없다. 北魏 시기에 조령을 내려 別坊·醫館을 건립하게 한 것은 정부가 백성을 위해 의료기구를 창설한 시초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南朝·齊에서 설립한 “六疾館”¹⁷⁾은 文惠太子와 竟陵王 肖子良이 만든 것으로 빈한한 병자를 돕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北魏의 이러한 조치는 최초의 것이다. 別坊이 임시적인 의료기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醫館은 고정적이고, 太常에 예속되어 있고, 醫署에서 醫生을 파견하여 진료하고 그 능력을 심사 후 상벌을 부과하는 제도 등은 관에서 주관하는 지방 醫院이다. 지방 의원의 성립은 백성들의 질병 치료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醫政史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보이다.

둘째, 의사를 왕진시키고 처방을 반포하였다. 皇興 4년(470년)에 “朕思百姓疾苦，民多非命……是以廣集良醫，遠采名藥，欲以救護兆民，可宣告天下；民有病者，所在官司遣醫就家診視，所須藥物，任醫量給之”¹⁸⁾하라고 조칙을 내렸다. 의사와 약물을 보내어도 구제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永平 3년(501년)에 또한 조칙을 내리길 “……更令有司，集諸醫工，尋篇推簡，務存精要，取三十餘卷，以班九服，郡縣備寫，布下鄉邑，使

務印書館. 1983. p. 265*45.

10)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冊府元龜.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05*454.

11)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冊府元龜.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05*454.

12) 沈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7*80.

13)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5*53.

14) 沈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7*83.

15)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6*86.

16)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1*148.

17)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5*635.

18)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1*99.

知救患之術耳”¹⁹⁾하게 하였다. 宣武帝 때 또한 “詔顯撰藥方三十五卷, 班布天下, 以療諸疾”²⁰⁾하였다. 집으로 왕진할 것을 鄉邑 등에 공고한 조치는 백성들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편리해졌고 백성들의 의료보전 수준을 크게 높였다.

셋째, 사상자를 구하고 군사를 救恤하였다. 北魏의 의정은 평상시에는 위와 같이 백성의 의료보전을 중시하였고 天災나 전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더욱 救治에 전력하였다. 太和 17년(493년)에 “遷恤軍士, 死亡疾病, 務令優給”²¹⁾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延熹 원년(512년)에 또한 조칙을 내려 “肆州地震陷裂, 死傷甚多, 言念毀沒, 有酸懷抱. 亡者不可復追, 生病之徒, 宜加療救. 可遣太醫折傷醫, 并給所須之藥就治”²²⁾하게 하였다. 이러한 것은 北魏 정부가 봉건 왕조의 의약이 궁정, 통치자, 군대만을 위한다는 전통적인 醫政觀을 바꾸어 백성들의 편익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쳤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당시 다른 왕조에는 없었던 것이다. 北魏 의정에서 群衆觀과 劉宋 의정에서 정부의 防疫觀은 이 시기에 가장 긍정적인 두 가지 醫政思想이다.

3) 소극적인 醫政

이 당시 각 왕조가 궁정의 의료보전에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皇帝의 사상과 신앙이 다르고 또한 皇權이 至尊無上하였기 때문에 황제에 따라 다른 醫療政令이 있었다. 晋代에 황제들은 시찰을 나갈 때에 “法駕屬車三十乘 …… 皆帛蓋朱褰云 …… 御藥車皆駕牛”²³⁾하였다. 魏·太祖인 拓跋圭는 老子의 말을 좋아하여 암송하길 게을리 하지 않았다. “天興中(390년~402년)儀曹郎董謐因獻服食仙經數十篇을. 于是置仙人博士, 立仙坊煮煉百藥. …… 太醫周澹苦其煎采之

役, 欲廢其事”²⁴⁾하였다. 이로써 황제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 관련된 의료 칙령과 제도의 설치가 좌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효과와 백성들의 고통은 자연 고려하지 않았다. 더욱이 南朝의 梁武帝 蕭衍은 佛法에 심취하여 天監 16년(571년) 3월 丙子에 “勅太醫不得以生類爲藥”²⁵⁾하라고 명하였다. 이러한 조칙은 생물류의 약물 운용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정령은 의약 발전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4) 도량형의 개량

이 시기에 채택한 의약의 도량형 개혁과 대외적인 의약 교류 및 출산장려 정책 등의 의료정책은 의학 발전에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西晋·元康시기(291년~299년)에 “裴頠以爲醫方民命之急, 而稱量不與古同, 爲害特重, 宜因此改治權衡”²⁶⁾하였다. 동시에 또한 “若未能悉革, 可先改太醫權衡. 此若差違, 遂失神農·岐伯之正. 藥物輕重, 分兩乖互, 所可傷夭, 爲害尤深. 古壽考而今短折者, 未必不由此也”²⁷⁾라 강조하였다. 당시 개혁한 의약 도량형이 어떤 내용인지는 『晋書·摯虞傳』에 “今尺長于古尺, 幾于半寸. …… 故宜改今而從古也”²⁸⁾라 기재되어 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언급한 “改今而從古”는 결코 복고가 아니라 古典醫書에서 사용한 도량의 표준에 따라 診治하여 처방 용약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만을 쓰고 折算하여 운용하지 않는다면 古方의 본 뜻을 잃게 되어 심각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혁은 발전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밖에 도량형의 통일도 처방과 약물 구매를 편리하게 하였다. 『舊唐書·偉術傳』에 “魏晉以來 …… 藥方格式 …… 無不畢備”²⁹⁾라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의약 도량

19)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1*148.

20)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7*713.

21)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1*125.

22)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1*149.

23) 孫人龍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449.

24)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2*888.

25)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5*126.

26) 孫人龍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288.

27) 孫人龍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628.

28) 孫人龍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864.

29) 沈德潛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舊唐書. 臺北.

형 통일과의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대외적인 의학 교류에 있어서 이 당시 이미 사례가 있었다. 梁·大同7년(541년)에 “百濟求涅槃等經疏及醫工畫師毛詩博士, 并許之”³⁰⁾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에 이미 국외와 교류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인구 정책 면에서 이 시기는 전란과 역병 등의 원인으로 인구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을 채택하였다. 南齊·明帝 때에 조칙을 내려 “民產子者, 蠲其父母調役一年, 又賜米十斛. 新婚者, 蠲夫役一年”³¹⁾하게 하였다. 北朝·北齊 시기 역시 유사한 정책의 규정이 있어 “…… 生二男者, 賞羊五口, 不然, 則絹十匹 ……”³²⁾하였다. 이 두 왕조가 인구 정책을 제정했기 때문에 魏晉 이래로 전란과 질병으로 인하여 인구가 격감되는 추세를 통제할 수 있었다.

3. 의정조직의 초보적인 구축

1) 의정구조의 특징

위진남북조 시기는 정국이 혼란하여 의료제도에 관한 기록이 분산되어 있다. 현재 나타나는 자료에서 보면 이 시기의 의정조직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秦漢의 전통을 계승하여 중앙에 최고 의정장관인 太醫令(각 왕조마다 칭호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설치하고 전국의 의정을 책임졌다. 사실은 주로 황족과 궁정 내부의 의료보전 업무를 책임졌다.

둘째, 西晉시기부터 최고 의정기관 겸 의료의 종합기구인 太醫署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최초로 설치된 의약관리 기구이다.

셋째, 南朝·梁代에는 태의서에 尙藥局을 설치하고 약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는 醫와 藥을 명확하게 분업하여 최초로 약품관리기구가 만들어졌다. 北齊시대에 尙藥局이 독립되어 門下省 소속으로 바

뀌어 관리되어 궁정의 약품을 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왕의 의료도 주관하였다.

넷째, 의학교육은 위진시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다가, 劉宋시대에 정식으로 개설되어 정부가 설치한 의학교육의 시발점이 되었다.

다섯째, 지방 醫院은 북위시대에 탄생하였다.

여섯째, 지방 의정장관은 각 朝代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2) 太醫署의 구조와 기능

曹魏의 醫政 설치는 兩漢 제도를 답습하였기 때문에 太醫令(6백석), 太醫 등의 醫官을 두어 九卿의 하나인 少府에 예속시켰으며, 전국의 의약(주로 황족과 궁정 사람의 의료보전)을 주관하였다. 이 시기에는 의관 사무만 설치되어 있었고 의정기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西晉이 처음으로 醫署(즉 나중에 太醫署)를 설치하여 전국 최고의 의약관리 기구로 만들었다. 이 기구는 관리자와 전문인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에는 太醫令(주요 책임자, 제7품), 太醫丞(조수) 등이 포함된다. 전문인은 太醫, 御醫, 高手醫, 金瘡醫 등이 포함된다. 두 그룹의 업무를 각각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었다.

태의령 등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의료의 政令을 조직적으로 관철시키고, 궁정의 御醫를 관리하고 황족 등을 치료하는 임무를 겸하고 있다. 태의, 어의 등은 皇宮 사람들의 진료와 치료를 주로 담당한다. 어떤 때에는 백성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황제가 파견시켜 질병을 예방치료 하거나 혹은 군대에 파견되어 치료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西晉시기에 醫署가 설치된 이래로 東晉 및 南北朝 시기에 기본적으로 이를 답습했다. 그러나 이 기구는 醫政史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한 이 시기 정국의 변화가 빈번했기 때문에 醫署의 예속 관계, 조직 구성원의 규모, 醫官의 品秩과 俸祿, 기구의 업무 성질 및 임무 등이 각 시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지금 아래 3가지 문제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0*255.

30) 孫人龍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晉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72*604.

31) 蕭子顯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齊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9*63.

32)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6*888.

(1) 醫署가 西晉에서 시작된 점

“醫署”가 언제 처음 설치되었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일설에는 남북조시기에, 또 다른 일설에는 隋代에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醫署”가 설치된 시기를 晉으로 보고 있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晉書·摯虞傳』에서 古寸의 도량 문제를 토론할 때에 “今尺長于古尺幾于半寸…… 醫署用之, 孔穴乖錯……”³³⁾이라 기재되어 있다. 晉書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은 西晉·武帝에서 惠帝까지의 인물과 사건들로 위에 『晉書』에 기록된 인용문으로 보아 醫署가 西晉 초기에 존재하였다.

둘째, 晉이 멸망하고 남북으로 분열된 후, 南朝의 宋과 北魏 모두에 醫署 혹은 太醫署를 설치하였다. 『宋書·禮志』에 “…… 太使·太醫·太官…… 太子諸署令…… 銅印·墨綬·朝服, 進賢—梁冠.”³⁴⁾이라 기재되어 있다. 『宋書·王歆之傳』에도 “初, 悅爲侍中, 檢校御府·太官·太醫諸署……”³⁵⁾라는 구절이 있다. 『南史·王悅之傳』에는 王悅이 “爲侍中, 在門下盡其心力, 掌檢校御府太官太醫諸署.”³⁶⁾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세 곳에서 劉宋시대에 太醫署가 존재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魏書·世宗記』에 醫館 설립에 관한 詔令 가운데 “…… 嚴勅醫署, 分師治療, 考其能否, 而行賞罰……”³⁷⁾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北魏시대에도 醫署가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으로 대치되어 두 정권이 할거하여 통치하였으나 양쪽 모두 醫署(혹은 太醫署)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는 남북 통치자들의 사상이 우연히 일치한 것에 불과하고 晉 이래로 醫政이 설치된 遺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셋째, 『通典』職官門에 기록된 晉·太醫令에 대한 대

우가 “晉銅印墨綬, 進賢—梁冠, 絳朝服而屬宗正……”³⁸⁾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위에서 인용한 『宋書』에서 劉宋의 太醫署令 대우와 같다. 이것도 晉代 醫政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세 가지 점으로 晉代에서 최초로 醫署를 설치하였다.

(2) 醫署(太醫署)의 예속

晉 시기에 “宗正, 統皇族宗人圖謀, 又統太醫令使…… 及渡江,…… 太醫以給門下省”³⁹⁾하였다. 남북조 시기에 太醫署가 南朝의 각 왕조에 예속된 것은 “宋齊隸侍中”⁴⁰⁾하였으나 『南齊書·百官志』에 “…… 太醫令一人, 丞一人,…… 屬起部亦屬領軍”⁴¹⁾이라 한 것에 의하면 南齊시기에 일부 관직은 여러 기관에 예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太醫署 및 그 관원은 이때에 侍中, 起部, 領軍에 동시에 예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梁代에 “門下省置侍中,…… 監合嘗御藥”⁴²⁾하고 “太官, 太醫等令”⁴³⁾을 거느렸고, 『隋書百官志, 陳承梁制, 皆循其舊官”⁴⁴⁾라 하였다. 이상에서 南齊에 여러 기관에 예속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여타 東晉 및 南齊의 太醫署는 모두 門下省에 예속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조와 남조는 차이가 있어 北齊는 門下省에 “尙藥局”을 설치하였고, 太醫署는 北魏 永平 3년에 “…… 勅太常…… 別立一館…… 嚴勅醫署, 分師治療”⁴⁵⁾하라고 詔令을 내려 太常에 다시 예속시켰다. “北齊太常…… 統諸陵…… 太醫·廩犧·太宰等署令丞……”⁴⁶⁾하였다.

38) 杜佑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通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3*302.

39) 孫人龍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晉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437.

40) 杜佑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通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3*302.

41) 蕭子顯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齊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9*199.

42) 魏徵 等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480.

43) 魏徵 等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480.

44) 미상.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欽定歷代官職表.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2*450.

45)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1*148.

46) 沈任遠. 魏晉南北朝政治制度.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33) 孫人龍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晉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864.

34) 沈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7*316.

35) 沈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8*585.

36)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5*388.

37)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1*148.

北周의 太醫署와 그 예속은 『周書』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通典』, 『通志』, 『文獻通考』에서도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후 진일보된 연구를 기대한다. 위의 것을 종합하면 西晉에서 太醫署를 창설하여 宗正에 예속시켰고, 東晉과 南朝에서는 門下省에 예속시켜 200여 년을 계승하였다. 北齊에서 醫政을 개혁하여 太常이 太醫署를 관리하고 門下省이 尙藥局을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3) 太醫署 의관 및 직책

위진남북조는 정치가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정권과 관원의 교체가 빈번하였고 관원의 명칭과 俸祿도 변화가 많았다. 醫官도 예외는 아니어서 같은 관직이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명칭이 같은 관원이 시기에 따라 그 직책과 임무가 상이하였다. 대체로 종류에 따라 나누면 政令官, 醫務官, 軍醫官 등으로 나뉜다.

政令官은 전국적인 의약위생의 政令을 주관하고 기타 방면의 의약 인원을 관리한다. 이들은 정부 관원에 속한다. 이 시기의 최고 醫政長官은 西漢·太常의 太醫令에서 발전한 것으로 여전히 太醫令이라 칭하였다. 그 職品과 俸祿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魏는 後漢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봉록은 600석이다. 西晉 때에는 관품이 7품이고, 東晉·宋·齊도 이를 따랐다. 梁 시기에는 관리를 18班으로 나누고 班은 대부분 신분이 높고 태의령은 11班이며 陳代에도 어려하였다.

北魏에는 관리를 九品, 18등급으로 나누었는데, 태의령은 7품이며, 北齊도 어려하였다. 後周의 관리는 正副九命으로 나누고 九命은 18등급으로 하고 命의 수가 높으면 관직이 높아 太醫인 下大夫는 6命이거나 혹은 그 이하이다. 태의령 아래 丞 2명을 두고 태의령을 도와 관리한다. 丞은 각기 직책이 있는데 대부분 太醫丞 1인, 尙藥丞 1인을 두어 각각 태의령을 도와 醫政과 藥政을 관리한다. 丞의 職品과 봉록은 태의령보다 낮고 대부분 7품·600석 정도이다. 尙藥丞이 분할하여 관리하는 藥政 업무는 북위시대부터 태

의령의 관리에서 벗어나 門下省에 귀속시켜 관리하여 尙藥局이 성립되었다. 태의령은 秦에서 南朝의 陳·北朝의 北齊까지 약 7백년 간 바뀌지 않고 답습되었다. 오직 北周에서 태의령을 太醫下大夫로 개정하고 아래에 太醫正 등을 설치했으나 그 기간은 짧았다.

醫務官은 태의령에게 명을 직접 받고 궁정의 황족과 대신 등의 치료와 보건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때로는 전국 각지로 파견되어 疫病을 살피고 치료하고, 군대에 파견되어 軍醫를 보충하였다. 이러한 부류는 역대로 수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어떻게 변하였던지 간에 그 업무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역대로 太醫, 御醫를 설치하였고, 또한 晉代의 高手醫·金瘡醫, 梁代의 上省醫, 北齊의 太子侍醫, 北周의 瘍醫·醫師·大醫·小醫 등이 모두 이러한 것에 속한다.

軍醫官은 군대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이다. 대부분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장기적으로 군에서 복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이나 혹은 장군이 병에 들었을 때 太醫署에서 太醫·御醫 등을 파견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太平御覽』에서 晉朝·劉德이 “官至太醫校尉”⁴⁷⁾하였고, 『資治通鑑·晉紀』에서 武帝 때 程據가 “太醫司馬”⁴⁸⁾가 되고, 『宋書·禮五志』에는 南朝·宋 때에 “太醫司馬銅印, 朝服武冠”⁴⁹⁾하였다. 南齊 때에 “司馬藥師”⁵⁰⁾가 있었다. 이러한 기록은 군대에 확실히 軍醫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말해주지만 예속 관계에 대해 이 시기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다른 부류는 임시로 파견된 의관으로 太醫署에 예속되어 있다. 『魏書』에 대장인 裴駿이 軍中에서 병이 생기자 世宗이 태의령을 파견하여 돌보게 하고 御藥을 하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의사는 임무를 완수한 뒤 태의서로 다시 돌아간다. 군대는 고대 정권의 지주였기 때문에 황제가 군대의 의료에 대해 매우 중요하였고 이 때문에 태의서와 군대의 연계

47) 李昉 等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類書類·太平御覽.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899*439.

48) 司馬光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資治通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305*664.

49) 沈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7*318.

50) 蕭子顯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齊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9*46.

1971. p. 91.

도 밀접하였다. 南齊 때에 “太醫令一人, 丞一人屬起部亦屬領軍”⁵¹⁾하였는데 이것이 좋은 증거이다.

이상에서 太醫署가 西晉시대에 처음 설치되었고 東晉南朝를 거치면서 발전되었고, 北朝 때에 개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국 최고의 의약위생 지도기관이다.

둘째, 醫政과 醫務가 합쳐진 종합기구이다.

셋째, 궁정 및 군대의 의료를 중시한 봉건 어용 조직이다.

3) 尙藥局의 구조와 기능

상약국은 궁정에서 약품을 주관하는 관직이 점차 발전하여 만들어진 기구이다. 南朝·梁代 이전에는 상약국의 존재를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그러나 약품과 藥政을 주관하는 官員은 東漢 이래로 일부 기록이 남아 있다. 東漢에는 태의령 아래 藥丞이 있어 藥政을 주관하였다. 魏晉 이래로 尙藥監, 藥長寺人監 등이 이와 비슷한 관직이고, 이들은 대부분 태의령에 소속되어 있었다. 南朝·梁代부터 상약국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尙藥局奉御, 自梁陳以後皆太醫兼其職”⁵²⁾하였다.

北魏는 태의서를 太常에 귀속시켜 관리하고 그 가운데 醫藥典御 등이 약품을 관리하였다. 北齊 때에는 醫政을 개혁하여 太常에 예속된 太醫署에서 약품을 관리하는 인원을 독립시켜 尙藥局을 만들었고, 또한 門下省에 귀속시켜 관리하였는데 약품 관리뿐만 아니라 제왕의 의료를 주관했다. 따라서 상약국의 지위가 이때부터 높아졌다. 長官인 尙藥典御의 관품이 정 5품에 이르렀고 尙藥丞의 직품이 중 7품이다. 상약국에 “侍御師·尙藥監各四人”⁵³⁾이 있었다. 北齊에는 궁정의 위생조직이 많이 늘어났는데 상약국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中侍中省에 “又有中尙藥典御及丞, 并中謁者仆射各二人”⁵⁴⁾이 있어 中宮과 后妃 등의 의약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中尙藥典御의 직품은 중 5품이다. 이 시기에 또한 門下坊에 太子의 의약을 전담하는 藥藏局을 설치하여 監二人(正六品下), 丞二人(正八品下), 侍藥四人(正七品下), 太子侍醫(正七品) 등을 두었다. 『通志職官略四』에는 齊·梁·陳·隋에 奚官습이 있어, 궁인의 질병, 의약, 罪罰, 喪葬 등을 일을 맡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 이러한 의관들은 모두 궁정 사람들을 위하여 일했다.

尙藥局은 魏晉·宋·齊·北魏에서 잉태하여 南朝에서 탄생하였고, 北齊에서 개혁되었다. 북제 이전의 직능은 약품의 관리였다. 北齊의 개혁을 거치면서 약품과 궁정의 황족, 대신의 의료 보건을 총괄하는 어용 기구로 되었다. 따라서 상약국은 기구가 독립되고, 궁정에 專用되고, 의약을 주관하는 특징을 갖추었다.

4) 의학교육의 단서

중국 고대 의학교육은 주로 師徒 전수 혹은 부자간의 전수였다. 예를 들어 전국시대에 扁鵲과 子陽·子豹 등 사제간의 전수 등이 있다. 漢代에는 選舉제를 채택하여 민간에서 명의를 선발하여 통치계급을 위해 일하였다. 예로 들면 平帝 元始 5년(5년)에 천하에 명을 내려 方藥에 정통한 사람을 선발하였는데, 국가에는 아직 전문적인 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하지 않았다.

위진 이래로 의학교육에 관한 실마리가 나타났다. “六典注晉令助教部教醫子弟”⁵⁵⁾하였다. 이는 의학교육의 발단이 되었다. 東晉시기에 藥園을 설치하여 약물을 기르는 인원을 배양하는 기지가 되었다.

劉宋시기 元嘉 20년(443년)에 태의령인 秦承祖가 醫學을 설치할 것을 주청하여 널리 전수하였다. 이것이 정식으로 정부에서 의학교육을 설치한 시초이다. 劉宋·元嘉 30년(453년)에 文帝가 즉자 따라서 의학교육도 폐지됐다. 泰始 5년(469년)에 周朗이 의학교육을 회복시킬 것을 주청하여 “太醫官男女習教, 在所應遣吏受業”⁵⁶⁾할 것을 건의하였다. 후에 정국이 불안해

51) 蕭子顯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齊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9*199.

52) 杜佑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通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3*323.

53) 魏徵 等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501.

54) 魏徵 等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502.

55) 王應麟 撰.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玉海.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46*42.

56) 沈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8*481.

지고 478년에 劉宋이 齊에 의해 망하게 되자 끝내 설립되지 못하였다.

南齊 때에 太常에 保學醫二人을 두어 의학을 가르쳤다. 북위 시대에는 太醫署에 太醫博士와 太醫助教가 설치하여 隋唐시기 의학교육에 경험을 제공하였다.

5) 지방 의정의 초기 형태

지방 醫政의 설치는 궁정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백성들은 주로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거나 민간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開明 황제가 태의를 파견하여 백성들을 치료하였지만 의사와 약이 모자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는 당시 지방 醫政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지방 醫官의 설치에 관하여 산재된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晉代와 南朝·宋에서 諸侯 속에 典醫丞을 설치하였는데, 그 목적은 지방장관과 친족의 의료보건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南齊 때에 “太子與竟陵王子良俱好釋氏, 立六疾館以養窮民”⁵⁷⁾하였고, 永明 9년(491년)에 “……子良開倉振救. 貧病不能立者, 于第北立廩收養, 給衣及藥.”⁵⁸⁾하였다. 北魏·永平 3년(501년)에 醫館을 설립하여 “……使京畿內外疾病之徒, 咸令居處, 嚴勅醫署, 分節治療 ……”⁵⁹⁾하였다. 당시에 이러한 醫館은 질병에서 백성의 고통을 구하는 작용을 하였다. 南齊의 “六疾館”⁶⁰⁾이 醫院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北魏 때에 이르러 醫館에 전문 의사를 배치하고 근무와 상벌에 관한 제도가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 의원으로 자리 잡았다.

4. 위진남북조 의약정책과 의학발전과의 관계

1) 醫政행위와 정책방향이 그 시대 의학의 발전

57) 蕭子顯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齊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9*246.

58)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5*638.

59)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1*148.

60) 蕭子顯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齊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9*246.

추세를 좌우한다.

이 시기 궁정의 의약조직은 날로 규모가 커졌고 황족 특히 황제의 관심사가 의정행위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행위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은 바로 仙丹妙藥을 구해서 장생불사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의약학 분야에서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시되었고, 朝野의 의생들이 이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물론 服石煉丹의 풍조는 魏晉 이래로 玄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동시에 魏晉의 玄學은 이 시기 통치자의 사상에도 깊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현학은 은연중에 감화되어 그 작용이 정책 작용에 비해 파급효과가 느리다. 그러나 통치자에게 깊이 뿌리박힌 장생에 대한 욕망이 현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醫政의 행위로 나타나 이 시기 의학에 미친 작용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거대하였다. 이러한 작용의 전반적인 효과와 평가는 이득보다 폐단이 컸다. 그 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풍조 방면에서 보면 服石煉丹은 퇴폐적인 풍조를 조성하였다.

둘째, 사회적인 효과에서 보면 服石으로 인해서 병들거나 불구가 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시기에 백성들이 致病하고 사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셋째, 의학발전에서 있어서 服石으로 인하여 특수한 병증이 나타나 의학적인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醫藥學의 정상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이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鉛丹의 정련을 통해 외용약인 紅升丹을 만들어냈고, 수은합금을 정련하여 수은제를 만들어내어 치과치료에 운용하였다. 광물약의 운용은 약물품종을 확대시켰다. 服石中毒은 병인 및 치료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2) 방역정책 제정은 당시 의학발전 수준이다.

위진 이래로 疫癘의 유행이 빈번했다. 劉宋 중기에 정부가 예방조치를 취하여 역병이 만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 이러한 방역정책의 제정은 당시의 의학발전의 수준에 의거하였다. 晉代에는 時疫熱病 방면에 비교적 큰 진전이 있다. 葛洪은 溫病과 傷寒의 구별을 명확히 밝혔고, 溫病의 전염성을

분명히 제시하여 “鬼毒相注”⁶¹⁾라 하고 아울러 “癘氣”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肘後備急方』에는 天花病과 恙蟲病에 대해 기재하였는데⁶²⁾⁶³⁾, 이는 세계 최초의 기록이다. 이밖에 狂犬의 腦로 광견병을 치료한 것이 면역사상의 맹아로 볼 수 있고⁶⁴⁾ 人痘接種術의 발단이 었다⁶⁵⁾. 王叔和는 『脈經』에서 溫瘧, 溫毒, 溫疫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⁶⁶⁾. 東晉부터 열성병·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劉宋 시기에 정부가 방역조치를 제정하여 비교적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3) 군대 의학에 대한 중시가 군의 외과학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군은 통치 계급의 도구였기 때문에 軍 의료는 정부가 줄곧 중시하였다. 이 시기 군대에는 모두 軍醫가 설치되어 있었고 또한 궁중에서도 御醫를 자주 파견해서 치료하였다. 군대의 병은 대부분 外傷痛瘍病이고 빈번한 전란으로 대량의 외과환자가 생겨났다. 통치자가 군대의 의학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은 군대 및 지방 의생으로 하여금 외상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외과학에 대해 풍부한 실천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최초의 외과학 전문의서인 『劉涓子遺方』도 탄생하게 되었다⁶⁷⁾. 그 외에 전란과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便廉驗”한 특징을 갖춘 『肘後方』이 탄생하게 되었다.

4) 출산장려 정책이 부인과·소아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남북조시기에 정부는 전란과 질병으로 인구가 격감하는 추세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을 제

정하였다. 이 정책이 의학계에 반영되어 부녀자와 소아의 보건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부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서가 나왔는데, 徐文伯의 『療婦人瘦』 등이 있다⁶⁸⁾. 소아 전문가 많이 나와 徐叔響, 范東陽 등이 있다. 이러한 전문가와 전문의적은 부녀자와 소아 보건 내지는 인구 번성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다.

5) 궁정 의사에 대한 억압이 의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 시기에 궁정에는 일정한 의료인이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은 궁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 일정한 의학의 장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궁정 의사가 된 뒤에는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첫째, 의료의 대상이 바뀌고 범위가 축소되어 각종 질병을 광범하게 앓는 백성에서 至高無上한 황제와 그 황족으로 바뀌었다. 둘째, 질병의 종류가 줄어 각종 질병을 치료하던 것에서 궁정의 제한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셋째, 의료 환경이 매우 조심스러워 차칫 잘못을 저지르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이 궁정 의사의 가장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예를 들면 十六國 시기에 太醫 程延이 前秦皇帝인 苻生을 진찰하여 병인이 대추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자 苻生은 “汝非聖人，焉知吾食棗?”⁶⁹⁾라는 이유로 程延을 참수하였다. 北魏·武帝는 “以太醫 俞陰光爲視療不盡術，伏法。”⁷⁰⁾하였다. 醫政의 최고 장관인 태의령이 이와 같으니 나머지 태의의 환경이 어떠한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원인 때문에 이 시기 360여 년 동안 궁정 의사 가운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드물었다.

晉·王叔和는 태의령을 지냈으며 저서는 『脈經』이 있고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을 편찬하였다. 왕숙화 이외에 의학 업적을 남긴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와 반대로 민간 의사들은 상당히 자유로웠다. 그들은 광

61) 葛洪 著. 梅全喜 외3人譯. 肘後備急方今釋.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234.
 62) 張浩良. 葛洪及其肘後備急方的成就和貢獻.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423.
 63)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2000. pp. 176~177.
 64) 朴炫局 외 2人.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서울. 一中社. 2004. p. 21.
 65)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76.
 6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33.
 67)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78.

68) 李經緯 외1人. 中國醫學通史古代卷.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81.
 69)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2*365.
 70)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1*221.

범한 임상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아 큰 공헌을 하였다. 이 시기에 최초의 鍼灸 전문의서인 『鍼灸甲乙經』이 만들어졌고 저자인 皇甫謐은 수차례 관직에 천거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陶弘景은 관복을 벗어 神武門에 걸어 사의를 표하고 『本草經集註』를 편찬하여 본초학을 최초로 정리하였다. 이 이외에 葛洪·徐之才 등이 이 시기의 의학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민간 의사들의 공헌에 비해 궁정 의사들은 황족의 시중에 급급하여 자신의 생각을 펼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료의 수준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재능을 썩힌 것은 중대한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위진남북조 의정에 대한 평가와 형성 원인

1) 위진남북조 醫政에 대한 평가

(1) 의정의 요점

이 시기 의정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탐색하였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태의령 제도는 계승되었는데 太醫署·尙藥局 등의 기구가 탄생, 개혁되어 그 기본이 완성되었다. 궁정 의료가 부패하였다. 지방의정, 의학교육의 대략적인 초기 형식이 갖추어졌다. 백성을 위한 의료를 확대하고 정부가 防疫에 대한 典型을 수립하였다. 의약 도량형을 개혁하고, 대외로 의약이 교류되었고, 출산장려 정책 등 모두 그 단초를 나타내었다.

(2) 醫政 특질의 평가

이 시기 의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秦漢 이래로 태의령 제도를 계승한 것에서 太醫署를 창설하고 완비하기까지, 종합 기능의 태의서에서 醫藥의 분업, 尙藥局의 탄생 및 藥藏局의 성립까지, 궁정 御醫에서 태자 侍醫·中尙藥典御 등 세분화된 분업까지, 典藥吏가 약을 달이는 것에서 仙人博士가 靈丹을 찾으려한 것까지 등등이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다. 즉 이 기간 대부분의 醫療政務는 모두 궁정의 의료와 시설을 강화하고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 醫政의 주요 정책이 향한 규율은 다음과

같다. 통치자의 의료가 백성의 의료보다 우선한다. 궁정이 사회보다 우선한다. 황족이 將相보다 우선한다. 황제가 어떠한 사람보다 우선한다. 통치자가 정책을 제정할 때 주관적인 소망이 있었지만 역사적인 시각으로 관찰했을 때 이 시기의 의정은 객관적으로 國家醫藥 管理體制의 초보적인 틀을 처음 만들어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약관리기구, 궁정의료기구, 지방의정 및 의료기구, 의학교육 등의 기구는 모두 이 시기에 탄생하였고 이것이 이 시기 의정의 최대 수확이다. 이러한 것이 나중에 醫政機構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이 때 의정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구의 예속관계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宗正, 太常, 領軍, 起部, 門下省 등은 모두 태의서에서 관리하였다. 특히 北齊에 이르러서는 尙藥局이 門下省에 예속되고 太醫署는 太常에 예속되었는데, 이는 醫와 藥의 협력과 통일적인 지도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둘째, 기구의 직책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졌다. 예로 太醫署에 속해 있는 太醫는 궁정의 의료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尙藥局이 성립된 후에는 약품을 주관하고 또 궁정 의료도 책임졌다. 궁정의료에 기능이 중복되고 기능 중복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생겼다.

셋째, 궁정 의사들은 광범한 의료를 행할 수가 없었기에 그들의 의료 수준이 제고될 수가 없었다. 황제가 태의 등을 자주 파견하여 疫病을 시찰하게 하고 백성을 치료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궁정 내에 억압되어 있어 민간 의사들이 자유롭게 의료를 실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3) 北魏 의정의 특질에 대한 평가

북위 의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그 정책 방향은 위진남북조의 의정이 지향한 전체적인 규율에 부합한다. 일부 황제들은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적절치 못한 의료 詔書를 내렸다. 예를 들어 太祖인 拓跋珪가 궁정에 仙坊을 설치하고 仙人博士를 배치하여 仙藥을 제조한 것이 바로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獻文帝에서 宣武帝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북위 정부는 醫坊, 醫館 등의 의료기구를 설치하도록 명하고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했고 심지어 家診視, 方布鄉邑, 隱恤軍士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백성들의 의료와 보건 수준을 제고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백성들을 위한 의약정책이 확실히 반영된 것이다. 이는 醫政史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보이다.

이로써 정부가 민간 의원을 설치하는 시초가 되었고, 궁정 의사들이 대중을 향하여 의료를 실천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의사를 과전하고 처방을 공포하여 백성의 의료를 확대시키는 본보기를 수립했다. 초기 봉건사회에서 北魏 정부의 이러한 의료제도와 정책은 훌륭하였다. 따라서 그 공적은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북위 정부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역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문제는 劉宋 정부의 조치를 따라갈 수 없었다.

北魏시기에 모두 12차례의 역병이 발생했다. 獻文帝에서 宣武帝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에는 4차례나 발생하였다. 皇興2년(468년)에 “十月豫州疫, 民死十四五萬”⁷¹⁾한 것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역병의 유행은 이와 같이 심각하였지만 문헌에서 북위정부의 예방과 치료 대책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의료정책의 과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북위시대에 민간에 이미 의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家診視, 布方送藥하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과오를 메웠다고 볼 수 있다.

(4) 劉宋 의정의 득실에 대한 평가

유송 정부의 의약정책 방향은 마찬가지로 위진남북조 의약정책 방향의 전체적인 규율에 부합한다. 백성을 위해 의약을 확대시킨 정책은 北魏와 어께를 겨룰만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북위 정부와 서로 보완적인 것이다. 유송 정부는 의료 기구를 확대시켜 백성의 병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그러나 역병이 만연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文帝에서 孝武帝에 이르기까지 5차례나 유행

하였고 5차례 모두 통제하였는데, 이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약의 정책방향이 좌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유송 정부가 역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임무를 정책적인 차원으로 인식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다른 왕조가 얻지 못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政府防疫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공적이 탁월하다. 劉宋의 방역 실천은 후세에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劉宋과 北魏는 의정 방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송 의정의 부족한 면이 바로 북위 의정의 장점이다.

2) 위진남북조 의정형성의 원인

의료제도와 정책은 상층부가 구축한 범주로 이 시기의 정치제도, 경제조건, 문화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정책의 제정은 이러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태의서 등의 의료기구가 탄생하였고 의료정책들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위의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1) 정치제도의 요인

이 시기 의정제도의 형성은 반드시 사회정치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먼저 의정기구의 설치와 의관 배치에서 보면 秦漢의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크게는 국가의 의약행정을 관리하는 太醫署에서 작게는 태자의 의약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藥藏局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시기에 탄생하였다. 기구가 늘어나면서 의관도 상응하여 증가한다. 정치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각 왕조 대부분이 권문세가의 힘을 빌어서 정권을 쟁취했고, 각 왕조 또한 “九品中正制”를 기본적으로 채택하여 관료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정권이 권문세가의 수중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다 많이 보다 우수한 醫藥 시중을 받길 요구했다. 따라서 궁중에 의관이 늘어났고 기구가 팽창하였으며 “藥藏局”⁷²⁾, “仙坊”⁷³⁾과 같은 시설이 생겨나게 되었다. 물론 태의서, 상약국 등과 같은 기구

72) 미상.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欽定歷代官職表.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1*505.

73)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2*888.

71)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2*818.

는 의약발전의 규율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다음 태의서 등의 기구가 예속된 상황에서 보면 정치제도가 의정에 미친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통치자는 자신의 건강을 매우 중시하여 의약을 그의 사유물로 삼았는데,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편리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리하여 태의서를 황제와 가까운 심복 부서에 예속시켰다. 이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정치제도의 변화는 의약의 예속관계의 변화와 함께 하였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정치제도의 명칭 변화는 비교적 적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많았다. 政務를 총 관리하는 기구는 漢末부터 尚書省이 장악하였고, 魏는 中書監·省이 권력을 장악하였고, 晉 때에는 文下省이 대두하였고, 남북조시기에는 門下省이 정권을 장악하는 변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三公은 “然皆無事, 不與朝廷”⁷⁴⁾하였다. 九卿만 남겨놓고 권력을 박탈당하였고 丞相相國도 실권이 없었다. 문화성장관은 侍中이 되고 侍中은 漢代에는 단지 황제를 시종드는 관리였으며 少府에 소속되어 있었다. 황제 가까이서 정사에 참여하게 되자 지위가 점차 높아져 “侍中掌理機要, 始於西晉, 盛於劉宋, 南北朝各代均無改易.”⁷⁵⁾하였다. 이 시기 정치제도에서 권력 변천으로 말미암아 太醫署의 예속도 바뀐다. 즉 西晉에는 宗正에 예속된 것에서 東晉 南朝에 이르러서는 門下省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北朝에 太醫署가 太常寺로 소속이 바뀌었지만 尚藥局은 여전히 문하성 소속이었다. 이로써 醫藥은 궁정에서 크게 중시되었고 이의 예속은 정치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를 거치든지 항상 황제와 가까운 중요한 부서에 예속되었다.

(2) 경제적 요인

의정제도 및 정치조치의 제정은 경제발전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체로 경제가 발달한 왕조는 의정사업도 상대적으로 발전하였다. 北魏가 바로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북위는 鮮卑族이 세운 정권이다. 그들이 中原에 들어온 뒤 그 문화에 동화되면

서 개혁하였다. 拓跋氏가 기존 생산방식을 도입한 뒤 빠르게 개혁을 하여 魏 孝文帝 때에는 “均田制”를 실시해서 북방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켜 南朝에 비해 더욱 활력적인 추세를 나타내었다. “國歌殷富, 庫藏盈溢.”⁷⁶⁾하였고, “人口已達三千三百餘萬, 比西晉全盛時期太康時代的全國人口還多出一倍有餘”⁷⁷⁾하였다. 北魏가 풍부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중국 최초의 민간 병원인 醫坊, 醫館 등도 이 시기에 탄생하였는데, 이는 북위의 경제발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통치자의 의약정책에 대한 영향을 배제시키지 않았는데, 경제 요소가 정책을 제정하는 중요한 조건임을 말해주고 있다.

(3) 문화적인 요인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儒學이 약화되고 玄學이 흥기하였으며 佛教·道敎가 유행하는 문화적인 배경이 문인학자들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동시에 통치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통치자의 사상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책방향의 변화를 일으켰고 정책방향의 변화는 다시 의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魏晉시기에는 玄學과 불교·도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통치자의 사상과 정책결정에 상당한 변화를 발생시켰는데, 北魏 太祖는 老子 사상을 신봉하여 궁정에 仙坊을 설치하고 仙藥 제련하였다. 梁 武帝는 佛法에 빠져 살아있는 약의 사용을 금지한 것 등이 모두 이러한 변화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III. 結論

魏晉南北朝 의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秦漢 이래로 太醫省 제도를 계승하여 太醫署를 창설하였고, 太醫署에 尚藥局을 설치하여 의약을 분리하였고, 왕과 태자, 후비의 의약을 담당하는 직책이 세분화되었다. 이 시기 醫療政務는 모두 궁정의 의료와 시설을 강화

74) 馬端臨 著.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文獻通考.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11*146.

75)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37.

76) 楊銜之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地理類·洛陽伽藍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587*41.

77)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37.

하는 것이었고 國家醫藥 管理體制의 초보적인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약관리기구, 궁정의료기구, 지방의정 및 의료기구, 의학교육 등의 기구는 모두 이 시기에 탄생하였고, 이것이 이 시기 의정의 최대 수확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이 시기의 醫政은 미흡한 점이 있다. 기구의 연속 관계가 불분명하였으며 또한 기구의 직책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졌고, 궁정 의사들은 광범한 의료를 행할 수가 없어 그들의 의료 수준이 제고될 수 없었다.

北魏 의정의 방향은 위진남북조 의정이 지향한 전체적인 규율에 부합한다. 獻文帝와 宣武帝는 醫坊, 醫館 등의 의료 기구를 설치하도록 명하고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했으며, 家診視, 方布鄉郡, 隱恤軍士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백성들의 의료와 보건 수준을 제고시켰다. 이는 醫政史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보로 정부가 민간병원을 설치하는 시초가 되었고, 궁정의사들이 대중을 향하여 의료를 실천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의사를 파견하고 처방을 공포하여 백성의 의료를 확대시키는 본보기가 수립했다. 그러나 北魏시기에 모두 12차례의 역병이 발생하였지만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문헌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劉宋 정부의 의약정책 방향은 마찬가지로 위진남북조 의약정책 방향의 전체적인 규율에 부합하고 백성을 위해 의약을 확대시킨 정책은 北魏와 어깨를 겨룰만하다. 유송 정부는 의료 기구를 확대시켜 백성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疫病이 만연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할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政府防疫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공적이 높이 살만하다.

위진남북조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의학 정책은 궁정의료에 편중되어 있었다. 국가의약관리기구의 틀이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의학교육, 지방 醫院, 醫政의 초기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玄學이盛行하고 服石鍊丹의 풍조가 유행하여 새로운 질병이 늘어났다. 전란으로 外傷科가 발전되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의사들은 부인과 소아의 질병을 중시하였다. 官醫의 공헌으로는 王叔和의 脈學이 있다. 민간 의사들은 鍼灸, 本草 등의 방면에서 풍부한 실천경험

을 쌓았다.

IV. 參考文獻

<단행본>

1. 朴炫局, 金基郁, 李丙旭.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서울. 一中社. 2004.
2. 洪元植, 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3. 李經緯, 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4. 葛洪 著. 梅全喜 외3인譯. 肘後備急方今釋.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5. 張浩良. 葛洪及其肘後備急方的成就和貢獻.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6.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7. 孫人龍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晉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8. 魏收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魏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9. 沈約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0.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1. 李延壽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北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2. 蕭子顯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南齊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3. 沈德潛 等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舊唐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4. 魏徵, 長孫無忌 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隋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5. 杜佑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通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6.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冊府元龜.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7. 이상.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欽定歷代官職表.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8. 李昉 等奉勅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類書類·太平御覽.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9. 司馬光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編年類·資治通鑑.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0. 王應麟 撰.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玉海.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1. 馬端臨 著.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文獻通考.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2. 楊銜之 撰. 文淵閣四庫全書·史部·地理類·洛陽伽藍記.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3. 沈任遠. 魏晉南北朝政治制度.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1.